

1분기 車보험 누적 손해를 79.1%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자동차보험의 영업수지 적자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73.9%) 저점 이후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손해율은 79.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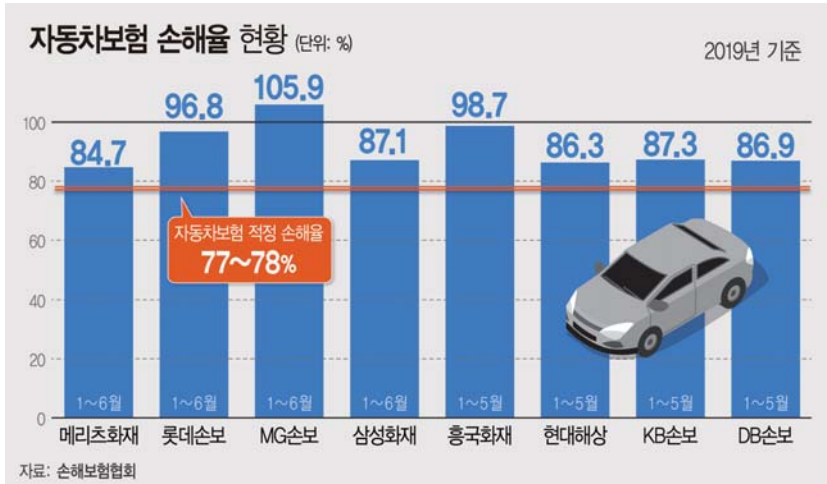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세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2019년 이후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영업수지 적자 확대에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예상된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담보 등 피해물의 수리 등에 활용되는 담보를 뜻하는 불적담보 손해율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대물배상 등 ‘물적담보 손해율’ 늘어 큰 영향”

“보험사기 억제 등 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 필요”

“실적손해를 반영 보험료 조정 적시에 이뤄져야”



인적 담보 손해율은 2017년에 81.8%에서 2018년에 78.5%로 다소 낮아진 반면, 불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다. 불적담보 구성비가 60%가 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손해율 증가 현상은 불적담보 손해율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불적담보 손해율의 급등은 1사고당 손해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당경과보험료가 줄어든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불적담보 대당경과보험료가 줄어든 것은 2017년 하반기부터 보험회사가 불적담보 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고, 인적담보 보험료를 실적에 비해 소폭 인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이 국민 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감안해 보험사기 억제 등 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실적손해를 반영한 보험료 조정이 적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들이 실적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스

전남도,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43% 인상

전남도는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9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인상, 7월부터 소비자요금을 전년보다 0.43% 인상하게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부 장관이 2개월마다 승인하는 원료비 등 소매 공급비용(84%)과 도시가사 승인해 1년간 적용하는 소매 공급비용(16%)을 합해 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4개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은 1MJ(메가주울)당 평균 2,081.8원으로 전년보다 0.0651원(3.23%) 올랐다.

이에 따라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실제 소비자 지불하게 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년보다 0.43%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인상요금은 2020년 6월까지 적용된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인상은 지난 1년간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실적 차이, 배관 투자비, 사회적배려대상자 감면 등 정산 요인과 향후 배관망 확충 등 투자계획 금액을 반영해 이뤄졌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2개월간 용역을 진행했다.

김정환 기자

이마트도 롯데쇼핑도 올상...2Q 실적 전망 ‘빨간불’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위축되고 있다.

21일 업계와 자본시장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 2분기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상성증권은 이마트의 2분기 매출액이 4조4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업이익은 105억원 손실을 보 적자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마트는 소비자 이탈 방지를 위해 트레이더스, 전문점 등 저수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는 있다. 마찬가지로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온라인 채널도 키우는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비용절감형 턴어라운드 가 기대되고 있지만, 업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실적의 저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상성증권의 판단이다.

메리츠증권도 이마트의 2분기 매출액은 4조6000억원으로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47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봤다. 할인점의 기존점성장률이 부진했고, 할인행사 확대 등으로 매출총이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업계의 기존점 성장률이 -5%대에 머물고 있고 연초부터 진행 중인 가격 할인 정책이 충분한 모객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위기감은 내부에도 팽배하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달 말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오고 기회는 생각보다 늦게 온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롯데쇼핑의 사정도 비슷하다. 현대차증권은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할인점과 슈퍼마켓 업황을 반영해 롯데쇼핑의 연간 수익예상을 하향 조정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21만원에서 19만원으로 낮춰 잡았다. 특히 할인점의 경우 이커머스와 경쟁심화로 영업적자 지속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상성증권은 롯데쇼핑 2분기 매출액을 전년 대비 1% 성장한 4조4800억원, 영업이익은 178% 증가한 970억원으로 전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3분기 중국 마트 사업 매각 등 해외 사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1분기와 비교해 볼 때 편차

멘탈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온라인 판매 호조에 힘입어 할인점 매출이 전년 대비 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백화점과 마트의 부진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이마트는 오프라인 유통이 침체된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SSG닷컴 몸집 키우기에 한창이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긴 힘든 상황이다.

양지혜 메리츠증권증권 연구원은

“새벽배송 등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온라인 통합법인의 손실폭은 상반기 218억원 적자에서 290억원 적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순위	당첨개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6	3,233,804,250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1	53,013,185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152	1,502,69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9,133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89,491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지급서일로부터 1년, 휴일인 경우 약정임의

인크루트 직장인 여름휴가때 누구랑 쉬 할까? '나 혼자·신다' 늘었다



누구와 함께 휴가 보내시나요?
1위 연인(20%) 2위 친구(19%) 3위 부모(19%)
4위 나 혼자(14%) 5위 자녀(10%)

여름휴가 앞둔 직장인 3명 중 1명 '계획 없이 그냥 쉰래'

국내 42%, 해외 18% “나혼자” 지난해비 늘어

올 여름휴가를 앞둔 직장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국내 여행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 혼자 쉬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나 눈길을 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맵 알바풀이 직장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먼저 여름 휴가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응답한 직장인은 78%가 “있다”, 22%는 “없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80%)이 하계휴가를 계획한 것.

예상하는 휴가기간은 ▲'7월 다섯째~8월 첫째 주'(7/29/월~8/4/일)가 22%로 1위, 이어서 ▲'9월 이후' 14%, ▲'8월 둘째 주'(8/5/월~8/11/일) 13% 순으로, 23위에 꼽혀 7월말 8월초가 휴가의 절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휴가 계획으로는 여행이 가장 많았다. 응답률 1, 2위에 각각 ▲'국내 여행'(30%)과 ▲'해외여행'(26%)이 꼽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 다음으로는 ▲'휴식'을 하겠다는 응답이 23%로 의외의 3위를 차지했다. 하계휴가를 통해 특별한 계

획에 움직이는 것 보다는 쉬는 것이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 '휴식'을 하겠다는 비율이 17%였던 점에 비하면 6% 오른 것이다.

한편,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계획한 비율은 각각 42% 18%로 국내여행 계획은 줄고 반대로 해외여행 계획은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계획 없이 지내는 것이 계획'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각 7%로 변함이 없었다. 즉, 올해 휴가계획을 세운 직장인 3명 중 1명은 계획 없이 쉬는 것을 선호한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휴가는 누구와 보낼 예정일까? 순서대로 ▲ 연인(20%), ▲ 친구(14%), ▲ 부모(19%), ▲ '부부'(14%), ▲ '나 혼자'(14%), ▲ 자녀(10%) 순으로 두 자릿수 응답을 받았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나 혼자' 보냈다는 비율이 12%에서 올해 소폭 늘었고, 반대로 '자녀' '부부' 등 가족동반 계획은 각 15% 10%씩 줄어든 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직장인들이 여름휴가를 하려면 5일 내외의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